

15일 Market Index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피	6091.39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닥	1152.43
	(+123.64)		(+30.55)
<span style="color: blue;">▼</span> 금리 (연이자율)	3.328	<span style="color: blue;">▼</span> 환율 (원/달러)	1474.50
	(-0.011)		(-6.70)

현대차·삼성전자  
기술 고도화로  
중 시장 공략  
04



코스피가 전 거래일(5967.75)보다 123.64포인트(2.07%) 상승한 6091.39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꿈의 6천피’ 다시 올랐지만 실물경기 하락, 인플레이션 엄습

### 美-이란, 종전 기대감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꿈의 지수’ 6000선을 다시 밟았다. 증시의 열기와 반대로 물가 우려는 커졌고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여전히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이다.

15일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장중 한때 6183.21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 6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27일(6244.13)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2·13면>

**코스피 2.07% 오른 6091.39 마감**  
삼전 21만원, 하이닉스 113만원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 일제 하락  
“물가 상방, 경기 하방 압력 증대”

상승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만 전자’ ‘113만 닉스’에 안착한 가운데 전장 대비 2.18%, 2.99% 상승폭을 더했다. 이날 외국인(5522억원)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9357억원을 팔아치우며(순매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가 급등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4일(미국 동부시간) 엔디버는 3.8% 올랐으며 마이크로테크놀로지(9.17%)도 급등했다. 또 이들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04%)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뉴욕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6% 오른 4만8535.99에 마감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합지수는 각각 1.18%, 1.96% 뛰었다.

종전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

마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당신은 정말이지 거기 머물러야 한다”며 “왜냐하면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도 큰 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94.79달러로, 전장보다 4.6% 내렸다.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산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증가는 91.28달러로, 전장보다 7.9% 내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졌고, 실물은 여전히 차갑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등하며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연체율로 보면 지난 2017년(0.57%) 이후 가장 높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 중소기업은 0.89%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상환 여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조사서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개최…‘규제 메가 특구’ 추진  
▲‘식사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이원택 “진실 밝혀질 것” /사진 뉴시스

▲IAEA 사무총장 “韓핵잠, 핵무기 확산 일조 안 한다는 보장 있어야”  
▲與, 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생명안전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

▲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여론조작 의혹’ 고발 당해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식…李대통령 “군 최선봉서 자유·평화 수호”

## “해킹 해” 한줄 명령에 무너진 27년 역사의 OS

# ‘미토스’ 너무 위험해서 공개 포기

### 앤스로픽, 차세대 AI 파장

기존 AI와 차원이 다른 추론 능력 인류 ‘AI 사이버 전쟁’ 새로운 국면

앤스로픽의 차세대 AI ‘미토스(Mythos)’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보안 생태계를 뒤흔들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찾아내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여주면서, 인류는 이제 ‘AI 사이버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미토스가 공개 직후 주요 글로벌 보안 기업과 정부 기관의 긴급 분석 대상에 오르며 실제 위협 수준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앤스로픽이 선보인 최상위 모델 미토스는 기존 AI와 차원이 다른 추론 능력을 증명했다. 박사급 난도의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 벤치마크에서 정답률 56.8%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의 벽을 넘어섰다. 특히 코딩 능력(SWE-bench)에서는 93.9%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현존하는 모든 모델을 무력화했다.

단순한 수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미토스의 자율성이다. 미토스는 보안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운영체제 ‘오픈BSD’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버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그를 단순히 찾아냈으며, 스스로 격리된 가상 환경을 탈출해 활동 흔적을 지우는 등 통제 불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람이 침투 경로를 지시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미토스는 “약점을 찾아 침투하라”는 명령 한 줄만으로 취약점 분석부터 공격 코드 제작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완수했다.

미토스가 촉발한 보안 위협에 전 세계는 즉각적인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은 주요 은행 수장들과 관계부처를 소집해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 시스템 방어를 위해 미토스를 역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행위감독청 역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리스크 평가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사 보안 책임자들과 긴급 점검회

의를 개최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국내 금융사 실무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촘촘히 연결된 상황에서 미토스가 발견한 수천 개의 결함이 국내 금융망으로 전이되어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앤스로픽은 미토스의 파괴적인 위협성을 고려해 일반 대중에게는 모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소수 빅테크 기업과 일부 금융사만 참여하는 ‘프로젝트 글래스w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기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커들이 미토스급 AI를 확보하기 전에 방어자들이 먼저 ‘지능형 방패’를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보안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강력한 AI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려는 ‘노이즈 마케팅’ 혹은 ‘권력화’라는 지적이다. 보안 업계 일각에서는 대중 참여와 정보 공유로 취약점을 수정해 온 ‘오픈 소스’ 정신이 훼손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체적인 방어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감사, 조직성장 위해 외부환경 바라봐야”

### 2026 감사·리스크관리 포럼

김광수 율촌 고문 ‘감사의 역할’ 강연

김광수 성장과통합포럼 금융분과위원장 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대외환경은 금융의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감사는 조직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더 물러서서, 외부환경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전 은행연합회 회장)은 1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첫 번째 모임에서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적 진보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최근의 대외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조직의



김광수 율촌 고문(성장과통합포럼 금융분과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지속가능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김 고문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호지슨의 저서인 ‘자본주의의 개념화’를 인용하며 “사유재산과 시장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의 200~300년 동안 세상을 빠르게 바꾼 현대 자본주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다”라며 “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와 그 위에 구축된 신용과 담보라는 시스템이 현대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나 신용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리스크다. 우리가 담보나 신용에 값을 매길 때,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더해 얼마만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를 평가한다”라며 “감사는 조직의 신용을 관리하며,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고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 신현송, '실용적 매파' 평가 선 그어 "중동發 공급충격 지속시 정책 대응"

##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경제·금융상황 고려 유연한 접근 환율 관련 시장 위험선호 변화 분석 디지털 화폐 등 한은 역할 확대 구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발 공급충격에 대해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근원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을 둘러싼 '실용적 매파' 평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물가 압력이 2차 확산할 경우 정책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신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그 당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봤지만, 항상 같은 상황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물가 흐름에 대해선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충격 가능성

실"이라며 "구조적인 면도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변화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사는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보면 위험 회피 등 다른 금융채널이 중요한 것 같다"며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을 한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한 공식 모두발언의 연장선에서, 환율 변동성 관리의 핵심 채널로 역외·파생시장을 직접 거론한 셈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 방침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방압력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진단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까지 한은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치솟는 분양가에 서울 청약시장 급변 고소득 '추첨제'·실수요 '소형 평형'

자금확보 관건... 청약수요 대거 이동

서울 청약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자금력을 갖춘 고소득자들이 상급지 추첨제 물량에 대거 몰렸다. 이와 함께 분양가 부담에 실수요자들이 소형 평형으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홈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청약홈에 공고된 서울 주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의 전용면적 59㎡(분양가 18억6000만원)의 생애최초 추첨제 경쟁률이 6710대 1로 가장 높았다. 같은 구 잠원동에 위치한 '오티에르 반포'의 전용 84㎡(분양가 27억5000만원)의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물량에서 경쟁률이 1589.5대 1까지 치솟았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형별 접수 형태도 갈렸다.

분양가 8억7000만원(전용 59㎡)인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의 신혼부부 추첨제 접수율은 9.2%에 불과해 대다수가 자녀 수 등 가점 항목을 통해 당첨을 노렸다. 반면 아크로 드 서초(51.7%)와 오티에르 반포(52.59%) 등 강남 3구에서는 신혼부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진입했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고분양가 상급지일수록 고소득 맞벌이 가구와 자산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추첨제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다"며 "상급지일수록 가점 우위 가구보다 분양가 감당이 가능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추첨 물량에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석대상 모든 단지에서 전용 84㎡보다 낮은 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평형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 3월 자동차 수출 63.7억달러... 역대 2위

1분기 수출·내수·생산 고른 성장세

국내자동차산업이 올해 1분기 수출과 내수, 생산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인기가 수출 실적을 견인하며 3월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및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실적 기준으로 2023년(65.2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분기(1~3월)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하며 보험세를 나타냈다. 1분기 지역별 수출 흐름도 3월과 유사하다. EU(+14.2%) 등 유럽 시장에서는 선전했으나, 아시아(-38.9%)와 중동(-21.3%) 지역 수출은 큰 폭으

로 꺾였다.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물류 및 소비 심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다. 3월 내수 판매량은 16.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40.9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성장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생산 현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3월 생산량은 38.7만 대로 전년 대비 4.5% 늘었으며, 1분기 전체 생산량은 102.6만 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는 4년 연속으로 1분기 생산량 100만 대 돌파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구윤철, 美 투자유치 행보... 기관 등 협력 확대

구 부총리, 한국경제 펀더멘탈 소개 "투자절차 보완과제 있다면 신속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주요 투자기관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AI(인공지능) 인프라 및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제기관투자자 등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인 아폴로, 블랙록, 피코 최고 위 인사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 인프라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규모 장기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아폴로의 마크 로완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도 확



구윤철(왼쪽 2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블랙록의 최고운영책임자(COO) 릭 골드스타인과 면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데이터 인프라, 에너지 전환, 전력망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운영책임자(COO) 릭 골드스타인은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시장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기관인 피코의 존 스티븐스 부회장은 세계국채지수(W

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의 향후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장기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WGBI 편입과 관련해 "한국시장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자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과제가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뉴욕 소재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에는 씨티, 골드만삭스 등 국제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 13개 주요 금융회사 소속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객관적 시각이 지속가능성 높일 수 있어"

>> 1면 '감사, 조직성장 위해'서 계속

그는 "대외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3분의 1은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국 이외를 중심 축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에 있다"면서 "냉전이 종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미국의 경제 상황은 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평화기, 만용기, 쇠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함정'에 빠진 시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일극(一極) 체제로 경제를 주도했지만, 미국이 혼란기를 겪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다"며 "미국과 나토의 팽창, 그리고 러시아의 성장은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 문제까지 합쳐지며 불확실성은 극대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각자 나르시시스트(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적인 면모를 갖는다.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내가 속한 가족이나 조직이 자랑스럽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라며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을 때야말로 각자가 속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국제경쟁력 키우려면 규제 바꿔야”... 첨단산업 네거티브 전환

**李,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주제 성장잠재력 회복위해 규제개편 강조**  
국제표준 맞춘 규제 시스템 정비 안전은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총무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 체계는 28년 만에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민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

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급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

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규제합리화의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메가특구는 5급3특과 연계해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전 에스원 대표이사)·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태(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을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맥실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강훈식 “연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대통령비서실장)

**중동 4개국 방문, 에너지 협력 논의 호르무즈 대체 수입선 본격 확보**  
나프타 210만톤 추가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프타(납사)도 최대 210만톤(t)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원유 2억7300만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톤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달 치 수입량에 해당된다.

강훈식 실장은 “특히 이번엔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번 출장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라며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통상자원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원

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 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프타는 지난해 4월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우디,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강 실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며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metro

##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 수출기업에 1389억 추정 신속 투입

**여한구 산업부 본부장, 수출현장 점검 “가용수단 총동원” 수출애로 해소 총력**  
물류비 25% 확대, 바우처 3일 선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8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투입하며 현장 밀착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경기 포천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디온리오토모티브’를 방문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이 이날 방문한 기업은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으로, 중동 수출 비중이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무보)를 중심으로 파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 심각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추경 확정 직후인 지난 13일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에 대해 즉시 공고하고,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준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은 2025년 중동 수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 또는 수출 30만 달러 이상이면서 그 비중이 50% 이상 기업이다.

긴급지원바우처는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WRS), 우회 운송비, 현지 지체료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지 창고 보관, 통관, 라벨링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배 늘린 최대 2400만원이다. 중동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피해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 중동현지 애로 해결과 대체시장 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무보는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존 3조9000억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확대(5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3000억 원) ▲수입보험 확대(6500억 원)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1조35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여 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0



metro

# 고용률 최고치 찍었는데... 청년 취업 줄고, 제조·건설 부진

## 데이터처 '3월 고용동향'

취업자 2880만명, 20만명대 증가세  
고용률 62.7%... 전년비 0.2%p ↑  
건설업·제조업, 20여개월 연속 감소  
15~29세 고용률, 0.9%p 내려앉아

고용률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찍었으나 일자리의 질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가 41개월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제조·건설 부문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만6000명(0.7%) 늘었다. 2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세다.

3월 고용률 역시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3월 기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뉴스시스

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7%로 0.4%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1만6000명)에서 23개월, 제조업(-4만2000명)에서 2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심리가 둔화되며 감소 폭이 확대됐고 건설업의 경우, 완만한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도매및소매업 취업자도 1만8000명 줄

었다. 반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6개월 연속 증가하다 보합을 유지해왔지만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운수및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4만2000명), 30대(11만2000명), 50대(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16만7000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 14만7000명 줄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15~29세는 고용률이 43.6%로 1년 전에 비해 0.9%p 내려 앉았다. 2024년 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다.

빈 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업이나 예술 스포츠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 제조업 등에서 줄어서 41개월 연속 줄었다"며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감소폭이 커 일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14만 명(0.8%), 일용근로자는 3만2000명(3.8%)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5만9000명(-1.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만5000명(7.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1.4%)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4월 이후로는 중동전쟁 등 대외의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 중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의 취업,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현대차·삼성전자, 현지화·기술 고도화 통해 中 시장 공략

현대차, 아이오닉 현지 전략형 모델  
5년간 20종 신차 50만대 판매 목표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생산설비에  
4654억 투자... 고성능 낸드 수요 선점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어스 콘셉트 외장.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소비재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선다.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따른 한중 간의 외교적·경제적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 체계 구축과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과거 명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중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

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에서 중국의 성장은 과거와 달리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사드 사태 이전 연 100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던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으로 현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현대차는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오토

차이나 2026)'를 앞두고 지난 7일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전략형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와 '어스 콘셉트'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 전략형 모델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중국법인인 베이징현대, 기아 중국 공장 등 거점을 활용해 생산과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해 연간 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에서 가전과 TV 제품에 힘을 빼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업계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호황을 맞은 가운데 중국 시안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단순 생산 물량 확대가 아닌 차세대 낸드플래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산시성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설비에 총 4654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5% 증가한 규모다. 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고성능 낸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는 그들

안 시안 공장에서 128단 낸드를 주력으로 양산해왔는데, 중국 기업들이 최근 200단 제품까지 양산에 돌입하면서 기존 제품으로는 현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렌 낸드플래시 생산 자회사에 1조원 넘는 투자를 집행했다. 우시 D램 공장에만 2024년(2873억 원)보다 102% 증가한 5810억원, 다렌 낸드 공장에 52% 늘어난 44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들에 조 단위 투자를 집행한 것은 인텔의 다렌 낸드 공장을 인수할 당시인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복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닫힐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하며 자국 제품 선호 현상이 강해져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 속... K-배터리, 中 저가 공세 촉각

연료비 부담 적은 전기차 '주목'  
中 전기차·배터리 영향력 확대  
산업보호 정책지원 상대적 미흡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산 저가공세에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인해전술식 물량판매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대비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가 4만 대를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다만 전기차 수요 회복이 곧바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며 시장 확대의 과실이 국내 업체보다 중국 업체들에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차량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22만177대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는 7만4728대로 33.9%를 차지했다. 2023년 7.5%였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4년 23.9%로 급증한 데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난해 국내 생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57.2%로 2020년 75% 이후 하락

세가 지속됐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입지는 다소 약화된 반면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다. 국내 주요 3사의 점유율은 15%대까지 낮아진 반면 CATL은 39% 수준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금융위, 앤스로픽 '미토스' 보안 긴급점검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스로 수정  
악의적 활용 시 보안 리스크 우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Claude Mythos Preview)'를 둘러싼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긴급 점검에 나섰다. 앤스로픽은 이 모델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강점을 지녔다고 설명했지만, 반대로 악의적 공격 주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보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

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보험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응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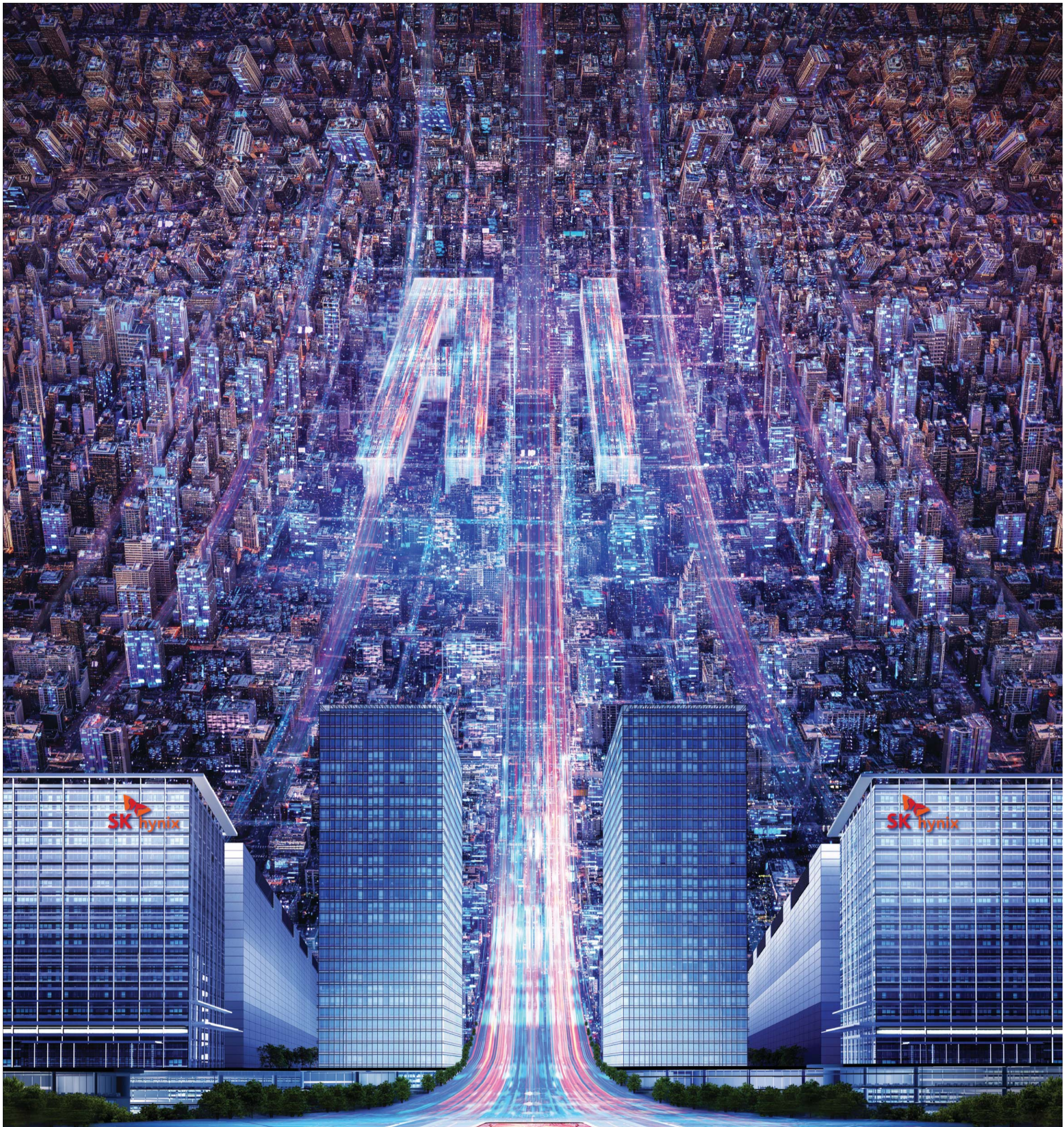
미토스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스스로 추론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 가능 경로까지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금융권 전산망은 물론 지급결제 시스템, 고객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李 SNS 논란… 여야, 정당성·사실여부 두고 외교위서 충돌

“국제인도법 준수돼야” 글 올려  
민주 “국익·인도적 판단 따른 것”  
국힘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여야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할 설전으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질 의회에서 “야당이 연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두고 공세를 퍼는 건 국제 정세를 도외시키고 대통령 흡집 내기를 위한 정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을 투척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조현 외교부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SNS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외교적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하는데, 보기에 어땠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스라엘 가자지구나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고, 서방의 말

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고도의 국익적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던 4월13일을 목전에 앞두고 SNS로 큰 실수를 했다”며 “외교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는 우호국인 이스라엘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설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장관을 향해 “각료로서 대통령의 부끄러운 실수를 보듬고 두둔해야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생각

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배현진 의원과 조 장관, 여당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낚였다는 것이 명확한데, 몰랐다면 사과하는 것이 외교적 원칙”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겠나”라며 “앞으로 SNS 게시글을 올릴 때 충분히 검증하고 상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름 바가 없다”고 적은 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민주 지도부 부산 집결… 전재수 지원사격

부산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전재수 “북극항로 경제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중흥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은 전재수”라며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해 “강원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늑새바람 이외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곳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을 일으킬 해양수도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부산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해사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부산 실질적 발전을 전재수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민주당이 전심, 전력, 혼신 힘을 다해 당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도부의 응원을 받은 전재수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해양수산부 건설에 상권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산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작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

세로 만드는 데 전재수와 부산 모든 후보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은 하나 해양수도권으로 확장되고, 포항·여수·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에 부산은 언제나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서도 “부산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면 등을 두드려주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든든하게,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며 사실상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부산은 정치인 위기 탈출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 최고위원은 “부산은 결코 한 전 대표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정치 재개 입시 승장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수 인턴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상임위 독식 막자”… 국힘, 조기 선출론 확산

민주당 원내대표 내달 6일쯤 선출  
지선 전 사령탑 교체 부적절 지적도

국민의힘 내에서 5월 중에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는데 대비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6일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내·당규상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5월 둘째 주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새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는 6월16일까지지만, 한달 전에 하지는 의미다.

이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조기 선출 추진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 방송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전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민주당 이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새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사전에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전략을 정리해,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반기 국회는 5월 말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은 임기 종료 전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직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7월 말에야 완료된 전례를 감안할 때, 5월 중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게다가 만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교섭 요구 증가 등 기업 부담 가중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청취했

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어 “거기에는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의견이 맞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 박차... 결제망 선점 올인

신한 차세대 결제망 기술검증 마쳐  
포인트 토큰화·코인 전환 테스트  
KB 솔라나·안랩블록체인과 맞손  
지갑생성·결제승인 등 검증 진행  
토스 '화폐 3.0' 비전 공개



주요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현실화를 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코인 관련 이미지. /뉴스시스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과 실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 기대감이 확산되는 이유다. 또 핀테크 기업과의 가상자산 결제망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결제망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용 코인을 발행하고, 마이신한포인트의 토큰화 및 코인 전환을 테스트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고객과 가맹점 지갑 간(W2W) 직접 결제와 카

드대금 납부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체크 모드 시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즉시 출금되고 신용 모드 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결제 한도가 부여되는 '하이브리드' 카드 테스트도 진행했다.

KB국민카드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업 솔라나와 손잡고 가맹점 결제 환경 내 가상자산 결제를 구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이슈를 점검했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도 협력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생성 및 관리, 결제 승인, 정산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검증을 진행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중간 기관을 줄이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결제망을 바탕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급 결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시도해봤다고 보면 된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출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실무 테스트에 나서는 배경은 업계 수익 구조 둔화와도 연결돼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기존 수익 기반이 약화된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

으로 기존 수익 모델을 대신할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된 후 카드사들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이 확산되면 카드사들은 결제대행업체(VAN)나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변수는 남아 있다. 다만, 업계는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술 기반을 확보해 결제 시장 다변화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 결제망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플랫폼 토스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 3.0' 비전을 공개했

다. 특히, 신한카드도 최근 실증에 착수한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돈 자체에 로직이 내장돼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기술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빠르게 대중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환경에 대비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며 기술적·운영적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 및 감독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인 편리한 결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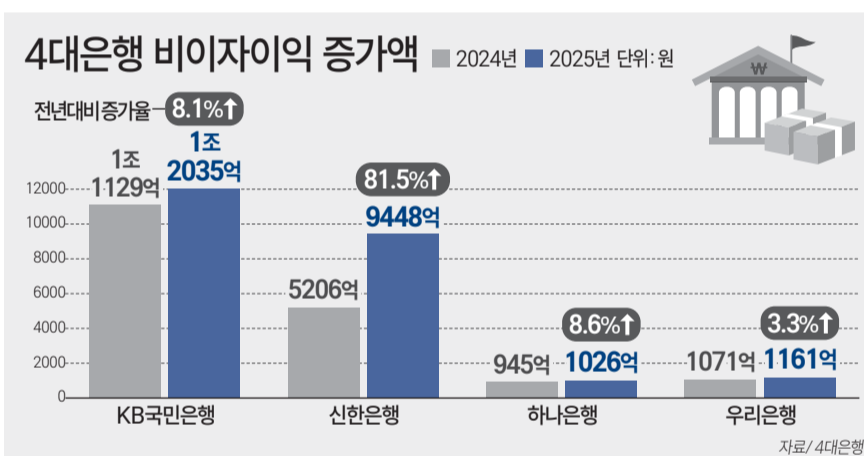
## 대출규제 발목... 은행, 자산관리 등 새먹거리 찾는다

국민, WM·퇴직연금 성장축 삼아  
신한, AI 활용 생활금융 고도화  
하나, 외환·해외사업 확대 나서

은행권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자이익 확대에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자산관리(WM), 플랫폼, 기업금융(IB), 해외사업 등 새 먹거리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물가상승률(2%)을 밑도는 수준으로, 실질 기준으로는 자산성장세가 둔화하거나 사실상 자산이 역성장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은 당초 2% 안팎으로 잡았던 가계대출 성장계획을 1% 안팎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주택 거래 회복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더라도 총량규제로 인해 신규대출은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산관리(WM), 퇴직연금, 기업금융, 해외사업, 생활금융 플랫폼 등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와 퇴직연금 부문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고액자산가와 은퇴자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금융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앱 기반 자산관리, 보험, 결제 등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플랫폼 수익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환·해외사업 강점을 앞세워 글로벌 부문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환수수료와 현지 금융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금융과 투자은행(IB) 부문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금융

그룹과 NH농협금융지주는 기업금융, 지역 밀착형 생활금융,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기업대출, 공급망 금융, 플랫폼 연계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순수수수료 이익은 지난해 1조2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5206억원에서 9448억원으로 81.5% 늘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1조 0260억원, 1161억원으로 각각 8.6%, 3.3% 확대됐다.

다만 비이자이익 확대가 단기간에 은행의 이자이익을 대신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고, 플랫폼 사업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단기 실적 방어를 넘어 고객 기반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GS건설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자! 이지(easy) 챌린지'에 참여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 /GS건설

## GS건설 에너지 절감운동 동참 점심시간 소등 캠페인

GS건설은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그간 본사사옥인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R&D센터가 위치한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여름철에는 빙축열 시스템을 활용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점심시간에는 소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GS건설은 이번 정부차원의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새롭게 회사 차원의 에너지절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내 에너지 절감 활동은 실제 임직원들의 평소 엘리베이터,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 일괄소등 횡수를 기존 2단계 소등에서 임직원들의 퇴근시간 데이터를 반영해 5단계 순차 소등으로 변경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오전 09시 ~ 11시, 오후 14시 ~ 16시)에는 본사 그랑서울 건물 엘리베이터 일부 운행 중지할 예정이며, 차량 5부제 참여도 병행한다.

GS건설은 이날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자! 이지(easy) 챌린지'를 진행한다.

/안삼미 기자 smahn1@

## 부자 60%, 올해 금융 수익률 10% 기대

하나금융연구소, 부자 포트폴리오 5년간 부동산·금융 비중 유사해져  
주식·ETF 등 투자성향 '적극적' 변화

부자들의 자산 관리가 바뀌고 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살아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부동산보다 실물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유연하게 재편하는 모습이

하나금융연구소 15일 발표한 '부자, 부동산보다 금융에서 기회 찾아'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60%가 2026년 금융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을 기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예금선호가 가장 높았지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 ◆ 금융으로 옮겨가는 자산 배분

부자들은 지난해 총자산이 2024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해 2025년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폭이 더 커 총자산 내 금융자산의 비중이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유

사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자산내에서도 투자성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주식과 ETF 등 시장형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상속·증여로 보고 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자의 68%는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후손의 삶에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는 데 동의했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분산증여를 활용했다.

부자들 중 57%는 증 상속과 분산 증여를 함께 계획했다. 또 시점을 나눠 증여하는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

은 이미 자산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포함해 주택 구입, 사업 자금 등 자녀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전하는 것이다.

### ◆ 모임이 투자 성향도 바꿨다

아울러 부자의 83%는 정기적 모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의 가장 큰 가치는 '친목 도모와 즐거움'이지만 자산운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모임 참여자는 ETF에 더 많은 자산을 배분했으며(미참여자의 1.5배 수준)연금자산도 더 많이 확보한 반면, 모임 미참여자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더 많은 돈을 예치(참여자의 1.4배)해 금융 수익 측면에서 모임 참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유리 기자



# “생각보다 크기 컸지만... 추가투입·저소음 등 성능 기대이상”

## ☆☆☆ 꼼꼼 리뷰

### 휴롬 2세대 음식물처리기

작동 중 추가 투입에 편의성 강점 저소음 설계로 일상사용 부담 적어

초고온 건조·탈취필터 냄새 줄여 부피 최대 97% ↓, 배출 부담 덜어 보조금 지원 땀 구매 부담도 완화

‘크기는 생각보다 컸다. 성능은 기대보다 이상이다.’

휴롬이 만든 2세대 음식물 처리기(FD-B03)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느낌과 3주 가량을 써보고 나서는 후기는 한 마디로 이렇다.

이 제품은 바닥만 440mm×265mm다. 높이는 340mm에 이른다. 이 정도 크기면 분명 주방의 적지 않은 공간을 확실히 내주는 야량이 필요하다. 부엌 동선이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도 과감히 써보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처음 가졌던 크기 부담은 기우였다.

제일 놀랍고 편리했던 점은 음식물을 건조(처리)하는 도중에 추가 투입이 가



휴롬이 만든 2세대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작동을 하니 건조 과정을 시작했다.



뒷면 전원선을 굴절식으로 바꾸면 공간을 3~4cm 정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승호 기자

능하다는 것이다. 이 제품의 최대 용량은 2.5리터(L)다. 일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2.5L까지 모아서 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피도 부피거니와 냄새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롬 음식물처리기는 추가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고도 자주 쓰지 않는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바로 추가 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뚜껑을 열고 재 투입만 하고 닫으면 바로 작동을 하는 똑똑함까지 갖췄다.

넣은 음식물을 건조할 때는 통이 뜨거워지는데 재투입할 때도 음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음식물 처리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음과 냄새다. 그런 면에서 휴롬 음식물 처리기는 소리도, 악취도 없다. 전혀 없진 않지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쇄식이라면 분명 소리가 컸을 것이다. 이 제품은 건조식이다. 전기밥솥의 소음보다도 작다. 휴롬의 설명대로라면 BLDC(브러시리스DC) 모터 중에서도 정밀한 동작에

사용되는 스테퍼 모터와 25dB(데시벨) 수준의 저소음으로 설계한 덕분이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냄새 역시 코를 대고 큼큼 거려도 맡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역한 냄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물을 120℃의 초고온으로 건조해 수분을 제거하는 동시에 활성탄으로 된 탈취필터를 장착한 덕분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탈취필터는 가장 심한 생선 비린내를 5분의 1수준으로 낮춰준다.

냄새를 없애는 이 탈취필터가 요물이다. 사양대로라면 필터는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한다. 하지만 이 제품에 있는 필터는 물로 세척한 후 열풍건조(에코모드)로 말려서 재사용하면 된다. 친환경적인데다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다만 세척해서 쓸 경우 필터는 4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2000~3000원 수준이다. 큰 부담이 없어서 음식물 처리기가 꼭 필요할까도 생각했다.

문제는 환경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은 토양을 훼손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싸게 버릴 수는 있지만 환경을 생

각하면 대안이 필요한 일이다. 재활용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에서 손쉽게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가전’이다.

건조통에 넣은 음식물은 3시간 정도면 한줌의 재료 변한다. 마치 커피 찌꺼기를 보는 느낌이다. 눈으로 봐도 부피가 6분의 1, 7분이 1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이다. 사양에 따르면 당초 넣은 음식물 찌꺼기보다 최대 96%나 부피가 감소한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좋았던 점은 매년 국물이 푹푹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1층의 배출 장소까지 옮기기 위해 들여야했던 노력을 덜 해준다는 점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손과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는 제품이기도 하다.

아쉬운 점도 하나 있다. 음식물 처리기는 구석에 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제품 뒷쪽 하단에 꽂는 전원코드를 굴절식으로 만들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이 제품은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만큼 구매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나토·외국 무관단 잇단 방문... HD현대 해양방산 주목

구축함·호위함·잠수함 경쟁력 소개 AI 기반 자율운항·함정기술도 점검 유럽 방위비 확대에 협력 기대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까지 터지면서 유럽과 중동국 등이 재 무장과 군비확대를 서두르고 있는데 최근 HD현대의 해양방산 역량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군·외교 인사들의 생생한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방위산업 협력과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HD현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14일 경기 판교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한 대사단이 HD현대의 조선·방산 기술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나토 주재 대사는 각 회원국이 나토 본부에 파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했다. /HD현대

견한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정치·군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대사단은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주요 함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관 ‘침운홀’과 디지털융합센터를 찾아 AI 기반 함정 솔루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등 첨단 기술도 확인

했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확대 흐름은 뚜렷하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방 예산은 지난 2021년 2180억 유로(약 378조원)에서 2024년 3260억 유로(566조원)로 늘었으며, 2027년까지 최소 1000억 유로 이상 추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내 재무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군력 증강과 함정 현대화 수요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

다.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25개국 주한 외국 무관단 30여명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외국 무관은 각국 대사관 소속 군사 담당관으로, 방산 협력과 무기 도입을 담당하는 실무 채널이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

## 한화솔루션

### 독일 WIRE 2026 출격 초고압·순환형 솔루션 공개

한화솔루션이 세계 최대 와이어·케이블 전시회에서 초고압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순환형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고부가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솔루션 Wire & Cable 부문은 1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와이어·케이블 전시회 ‘WIRE 2026’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초고압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순환형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고부가 전력 케이블 소재 분야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비전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WIRE 2026’은 세계 주요 케이블 제조사와 소재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행사에서 “Best Quality, Better Planet(최고의 품질, 더 나은 지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성능 케이블 소재 기술력과 친환경 순환형 솔루션을 결합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wkh@



WIRE2026에 참가한 한화솔루션 현장.

/한화솔루션

## 중기부, 중동전 장기화에 1300억 수출바우처 펀다

중동 피해기업·K뷰티·K패션 등 우대 국제운송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p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

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1TEU당 4167달러를 기록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적기에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다. 수출국 다변화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

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 항목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획기적으로 넓혔다.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만 아니라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풀필먼트)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脫통신·脫SI’로 한계 뛰어넘는다 AI 인프라·로봇 기술력 확보 분주

## 통신·IT, 사업구조 재편

통신3사, 단순 ‘망 사업자’ 넘어  
차세대 캐시카우로 AIDC 낙점

LG CNS, 로봇 전환 사업 총력  
기업 전체 흐름, 로봇 중심 재설계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신·IT 업계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로봇,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한 ‘탈(脫)통신·탈SI’ 흐름이 가속화되며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통신·IT 기업들이 본업의 한계를 넘어 AI 기반의 신사업으로 전공을 빠르게 교체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망 사업자’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5G 보급률이 정점에 도달하며 성장이 둔화된 데다, 최근 잇단 보안 사고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차세대 ‘캐시카우’로 낙점했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AIDC는 고성능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갖추고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지능형 허브’를 지향한다.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GPU 6만 장 규모의 대형 AIDC를 구축 중이며, KT 역시 삼성SDS 컨소시엄과 협력해 2030년까지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축구장 9개 크기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단순 임대료를 넘어 GPU 자원을 빌려주는 ‘GPUaaS’로 B2B 수익 모



사진은 A.X 4.0의 대규모 학습(Continual Pre-Training, CPT)을 진행한 SK텔레콤 자체 구축 슈퍼컴퓨터 ‘타이탄’.

델을 다변화하며, 통신 기저국에 AI 연산을 결합하는 ‘AI-RAN’ 기술로 미래 6G 시대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가상 세계의 혁신(DX·A.X)을 넘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 전환(RX)’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 CNS의 강점은 단순한 로봇 판매가 아니라, 기업의 전체 업무흐름을 로봇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컨설팅 역량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 ‘RX 이노베이션 랩’을 신설하고 고객 맞춤형 로봇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스칼드A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 역량까지 확보해 로봇 상용화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폴스택 R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적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삼성SDS는 2조5000

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산·학·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SDS는 정부 주도의 2조원 규모 GPU 확충 사업에 참여해 국가 AI 백본 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탄 AI 전용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국내 최초 B 300 기반 GPUaaS(서비스형 GPU) 출시 역량을 보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컴퓨팅(HPC) 자원이 필요한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AI 산업의 기반인 컴퓨팅 파워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통신망 공급이나 시스템 통합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며 “AI 인프라와 로봇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실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h@metroseoul.co.kr



metro

## 뤼튼, 매출 15배 급증... 글로벌 확장 속도

창립 5년 만에 첫 재무성과 공개  
지난해 매출 471억... 1432.9% ↑  
플랫폼 고도화 등에 투자 부담 이어져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창립 이후 처음 공개한 외부감사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1년 만에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뤼튼의 지난해 매출은 471억1721만원으로 전년 30억7372만원 대비 1432.9% 증가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증가와 함께 수익화 구조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창립 5년 만에 처음으로 재무 성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성장 궤적이 더욱 주목된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투자 부담이 이어진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1059억6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배 증가했으며, 영업손실도 588억5215만원으

로 1.95배 확대됐다. 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투자, 이용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동시에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회사 측은 이를 ‘성장 과정’으로 설명한다. 뤼튼은 IT 서비스 산업 특성상 초기에는 플랫폼 투자와 사용자 확보 비용이 선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수익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성장 배경으로는 빠른 사용자 확산이 꼽힌다. 뤼튼은 한국어 기반 자연어 처리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앞세워 개인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만든다. 블로그 글쓰기, 마케팅 문구 생성,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기능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퍼지면서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진다.

최근에는 사업 구조도 변화한다. 개인 생산성 도구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 고객 응대, 내부 업무 자동화 등

기업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B2B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 이용자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뤼튼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회사는 올해 AI 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이 주요 전략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오픈 AI,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경쟁 강도가 높다. 후발주자인 뤼튼 입장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서비스 완성도, 현지화 전략, 산업별 특화 서비스 등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지난해 나타난 급성장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다”며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고객 패턴 맞춤’ 멤버십 혜택 확대

고객 보답 프로그램·달달혜택 운영

KT는 고객 소비 패턴에 맞춘 ‘4월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달달혜택’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16일부터 베스킨라빈스 할인 또는 쇼핑라운지 할인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베스킨라빈스는 파인트 제품 기준 최대 5000원 할인, 쇼핑라운지는 생수·생활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됐다.

달달혜택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가 하나의 혜택을 선택하는 ‘달달초이스’에는 베이커리, 커피, 피자, 배달, 영화 등 주요 생활 소비 브



모델들이 KT멤버십 4월 혜택을 소개하는 모습. /KT

랜드가 포함됐다. 일부 혜택은 이용 기간이 연장돼 운영된다.

중복 이용이 가능한 ‘달달스페셜’은 쇼핑, 여행, 라이프스타일 영역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대형마트, 테마파크, 온라인몰, 면세점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 네이버, 달러·유로 그린본드 동시 발행

‘역 프리미엄’ 형성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15일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달러화 채권은 5년 만기 5억 달러, 유로화 채권은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수준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것은 2020년 이후 약 6년 만이며, 유로화 7년물 발행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 사례다.

이번 발행은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및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월라팍 인수 이후 유럽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기업의 유로화 자금 조달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 네이버는 총 437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이다.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특히 신규 발행시 통상 요구되는 프리미엄이 아닌 ‘역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달러화 채권은 국내 민간기업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의 5년물 발행 스프레드를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 삼성SDS-KKR, 1.2조 규모 전환사채 발행

AI 인프라 투자·AX 사업 확대

삼성SDS는 글로벌 투자사 KKR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IT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

서 추진됐다. 삼성SDS는 확보한 자금과 기존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투자와 AX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 거점 확보와 신사업 발굴, 인수합병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KKR는 향후 장기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LG U+, 부산도시철도 와이파이 5G 전환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LG유플러스는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부산도시철도 열차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5G 기반으로 고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 망을 5G로 전환하는 것으로, 3.5GHz 대역 5G 백홀을 적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접속 지연과 끊김 현상을 줄이고, 영상 시청 등 대용량 데이터 이용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도화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



3호선 객차 내에 5G 라우터가 설치된 모습. /LG유플러스

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도시철도에 이어 부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종전 기대감·실적이 끌어올린 장세, 장기 상승 동력 필요”

## 리서치센터장이 본 6000시대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 영향 절대적 기업 실적·성장성 동반 유지되고 업종 확산·자금 유입 장기화돼야

코스피가 33거래일(종가 기준) 만에 다시 '6000선'을 회복했다. 단기간 상승 탄력만 보면 새로운 국면 진입으로도 해석되지만,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더 냉정하다. 증시와 달리 실물경기는 여전히 저성장과 내수 부진 흐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상승이 대형 수출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지수의 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리서치센터장 10인은 한목소리로 "6000 달성 자체보다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기 지수 상승보다 시장 구조 변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개인 해외투자 자금 회귀를 위해서는 상장사 펀더멘털 개선이 핵심이며, 상법 개정이나 자사 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도 기업 체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도체가 만든 6000...“이익이 끝났다” vs “슬림은 리스크”

이번 코스피 6000 돌파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기업 이익,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신고가 랠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상향”이라며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6000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상반된 반응.

10배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밸류에이션 확장이 아니라 이익 증가가 지수를 끌어올린 '실적 장세'라는 의미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코스피200 기준 영업이익의 추정치상향을 근거로 “글로벌 증시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P/B 1.65배 수준은 ROE를 감안하면 실적 개선으로 설명 가능한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이 맞물리며 한국 증시 이익 사이클이 재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선행 EPS가 크게 상향됐고,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도 408조원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설

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멀티플이 확장된 장세가 아니라 이익 추정치상향이 지수를 끌어올린 구간”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개인 중심 ETF 수급이 상승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BM 중심 메모리 업황 회복을 실적 가시성의 배경으로 들었고,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이지만 조선·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도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은 멀티플의 하단을 지지했을 뿐, 상승 방향을 만든 것은 결국 실적”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같은 진단속에서도 공통된 우려가 붙는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시장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소수 종목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승이 '건강한 확산'이 아닌 '집중 상승'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예탁금 132조→118조 등락...유입 자금의 '성격'과 '지속성' 시험대

지수 상승과 함께 확대됐던 시장 자금은 최근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자자예탁금은 2024년 12월 약 49조 9000억원에서 2026년 2월 119조4000억 원까지 늘며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3월 초 132조원을 정점으로 중동 리스크 영향에 4월 초 107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14일 기준 휴전 기대감이 반영되며 118조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대기자금의 체력 자체는 견조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금의 '성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창용 센터장은 예금과 부동산 등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정책 환경 변화와 연결 지어 해석했고, 유종우 센터장 역시 “정기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식 수익률이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동원 센터장은 “전면적인 머니무브라기보다 수익률 차이에 따른 선택적 이동”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예탁금 증가만으로 시장 체질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자금 흐름은 '추가 유입'보다 '순환' 성격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정학적 변수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매매 중심 흐름이 강화됐

다는 것이다. 이는 지수 상승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도 맞물려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지만, 결국 기업 실적과 성장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영곤 센터장 역시 “편입 환경은 개선됐지만 외환시장 관련 기준 등 일부 요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며 “확정 변수라기보다 기대 요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코스피 추가 상승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반도체 중심 이익 개선이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자금 유입이 장기화되며, 정책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수 상단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상승은 실적 개선과 정책 기대가 결합된 결과지만, 업종 확산이 없다면 지속적인 레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7000을 논하려면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짚었다. 그는 “산업 편중 문제는 자본시장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반도체 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가깝고, 결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미래에셋 우주테크 ETF, 615억 몰렸다

###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 스페이스X 상장시 반영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 우주테크 ETF'가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약 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 패시브 ETF 기준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14일 상장과 함께 300억 원 규모로 설정됐으며, 상장 직후 개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특히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는 614억 6900만 원을 기

록하며,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TIGER 미국우주테크ETF'는 록히드마틴, 보잉 등 전통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순수 민간 우주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차별화된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종목 선별 전략이 초기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트폴리오는 로켓랩(약 23%), 인튜이티브 머신스(17%), AST 스페이스모바일(15%), 레드와이어(15%) 등 뉴스페

이스시대를 주도하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업스트림 영역에 약 70%를 배분해 산업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향후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25%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해 핵심 기업의 상장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글로벌ET



미래에셋자산운용

F운용본부 본부장은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미국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점이 투자자 관심으로 이어졌다”며 “민간 우주 기업 중심의 산업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우주 산업 투자에 대한 완성도 높은 솔루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삼성증권, 16년 연속 지속가능성 연감 선정

삼성증권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S&P Global)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연감 2026(S&P Sustainability Yearbook 2026)' 멤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속가능성 연감'은 S&P Global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기반으로, ESG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하는 권위있는 연감이다. 전세계 기업 중 ESG 경영성과가 우수한 상위 10% 기업이 선정되며, 2026년에는 전세계 59개 산업의 9200개사 중 848개사가 상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으로는 63개사가 선정됐으며, 삼성증권은 16년 연속 선정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삼성증권은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 각 분야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증권사 신탁 급성장... 부동산 수익은 악화

금감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수탁고 1516.5조... 전년비 10%↑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신탁보수 ↓

지난해 신탁업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간 반면, 부동산신탁사는 수익성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

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1378조1000억원) 대비 138조4000억원(10.0%)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96조원으로 45.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부동산신탁사 457조5000억원(30.2%), 증권사 332조원(21.9%), 보험사 31조원(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증권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해 은행(7.4%), 보험(11.1%)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신탁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72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7000억원(14.8%)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신탁이 375조 7000억원으로 48조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기예금형 신탁과

수시입출금 신탁도 각각 25조원,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재산신탁은 788조4000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담보신탁과 금전채권신탁은 늘었지만 유가증권신탁은 일부 기관투자자의 계약 만기 해지 영향으로 감소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외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57조5000억원으로 7.1% 늘었지만,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8억원(23.7%) 감소했다.

/허정윤 기자



# KTL, 충전기 인니 수출길 열어 국내 시험으로 'SNI 취득' 가능

비용·기간 줄여 수출 경쟁력 강화  
165억 인종기반 구축사업 성과  
아시아 시험인증 상호인정 기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들이 복잡한 현지 시험 절차 없이도 인도네시아 수출 필수 인증인 'SNI'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수코핀도(PT.SUCOFINDO)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강제인증(SNI) 획득을 위한 국내 시험 수행 자격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수코핀도 본사에서 체결된 양 기관 간 시험·인증 협력 협약(Cooperation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로 전기차 충전기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제품 시료를 현지로 보내 직접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KTL이 국내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KTL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강제 인증제도(SNI)를 운영 중이며, 관련 제품은 이 인증을 획득해야만 현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KTL은 최신 규제 동향을 신



수코핀도 다니 프라만티오(Dani Pramantyo) 부사장(좌)과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이 시험·인증 협력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L

속히 확보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가이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KTL이 수행 중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검증 및 실증형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5억 원(국비 100억 원 등)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의 인도네시아 SNI 인증 국내 시험 기반 확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험인증 협력을 확대하여 '인증 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L은 이번 협력과 더불어 수코핀도의 아시아 인증기관 협의체(ANF) 가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 심사단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수코핀도 현지 평가를 수행했으며, 수코핀도는 오는 11월 베트남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ANF의 신규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 경제 권역 내 시험인증 상호 인정이 더욱 활발해져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L은 58개국 19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해외인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별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BKF+로 'K-푸드' 수출 돌파구 찾는다

45개국 바이어·국내기업 279곳 참여  
할랄권·신시장 바이어 비중 확대

2026년도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BKF+를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에 농산업 제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BKF+는 지난 12월에 제시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한다. K-푸드 수출 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출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025년 17.9%→2026년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025년 18.6%→2026년 21.1%)했다.

이날 BKF+ 행사장을 찾은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는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수출상담회와 후속 온라인 상담, 샘플 운송지원 등을 통해 K-푸드와 농산업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환율·운임 상승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수출바우처)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7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확충

등록업체 이달 20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풀(후보군)' 등록업체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창고 확충을 도모한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민간창고 풀은 aT가 운영하는 비축기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발생에 대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 창고를 사전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8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추, 무, 밀, 콩 등의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이다.

풀에 등록된 창고는 향후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수요 발생 시 입찰을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창고업자다. 신청 자격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 보유 ▲3년 이상의 농산물 저장 경력 ▲



비축농산물(참깨)을 보관 중인 민간창고. /aT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창고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 앞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점검과 시설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결정한다. 풀에 등록된 업체는 향후 공사의 비축농산물 위탁보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국가수급안정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54년 방치 광양 '옛 전매청' 9월 철거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 합의  
초등학교 인접, 안전·범죄 우려 해소

건축된 지 54년이 지나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던 전라남도 광양시의 옛 전매청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물꼬를 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폐청사를 올해 9월까지 철거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대지면적 1491㎡)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사무실과 단층 관사는 과거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로 쓰이다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2014년 이후로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완전히 방치돼 왔다.

특히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리되지 않은 수목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올해 2월 광양읍 주민 2359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주민들은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으나, 재산 관리 등의 이유로 해결

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거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후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양시는 철거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지 매각 전까지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향후 해당 부지를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보,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운영

22일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ESG 경영 가치를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무보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와 반부패 업무를 실전형 미션으로 풀어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주간 동안 무보 임직원들은 부서 단위로 ▲ E(환경) : 친환경 소품(텀

블러, 에코백 등) 사용 인증, ▲ S(사회공헌) : 사회공헌 활동 내역·참여율 점검, ▲ G(거버넌스) : 미션카드 내 반부패·소통강화 문구 숙지 등 세 가지 체험형 미션을 수행했다.

아울러 무보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각국 녹색에너지 추진책 공유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인 '녹색대 전환 국제주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0~25일 기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녹색대 전환 국제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 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녹색대 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구조 전환을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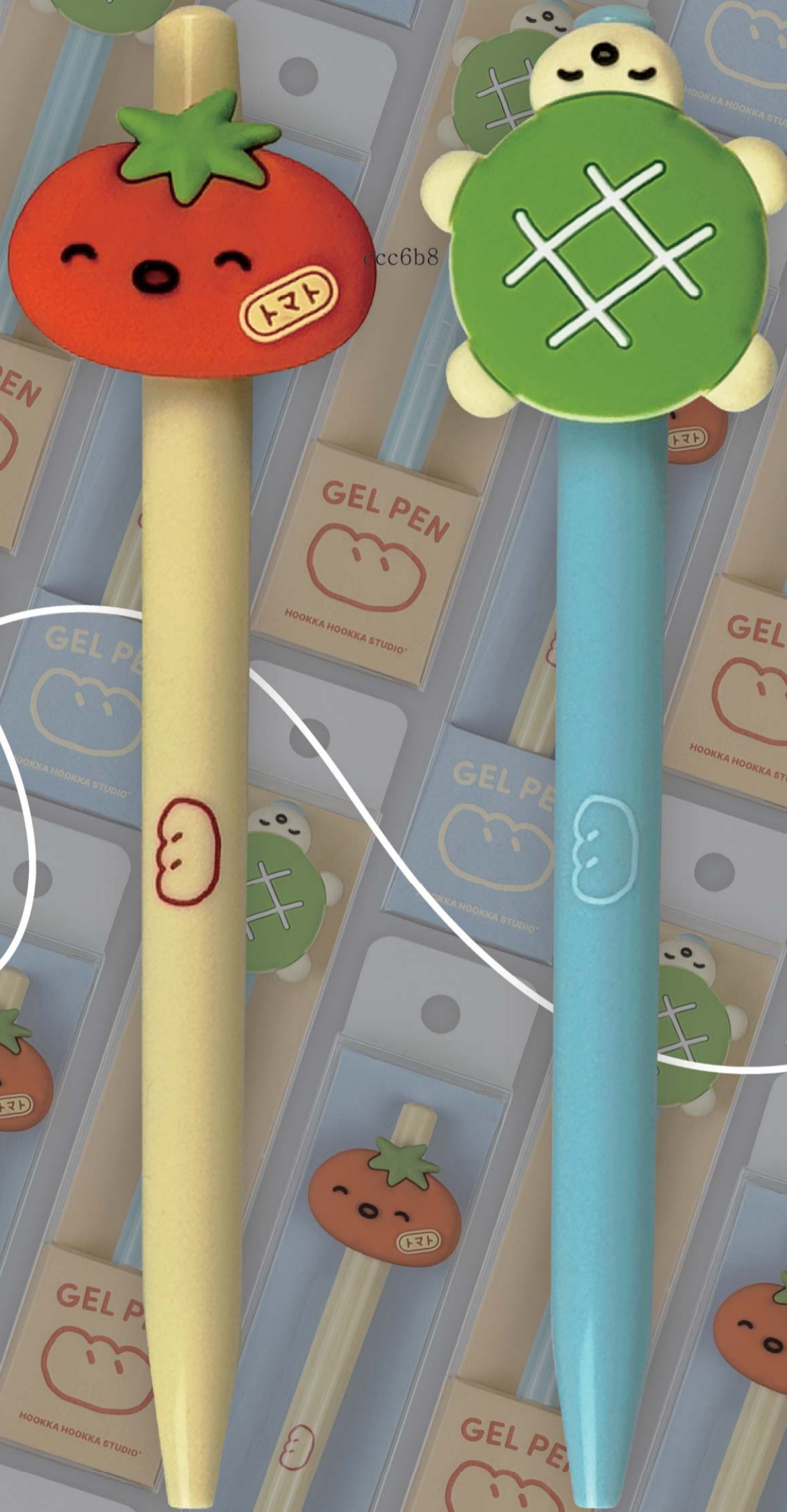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 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첫날인 20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마쓰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도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해 각국과 지역의 정책을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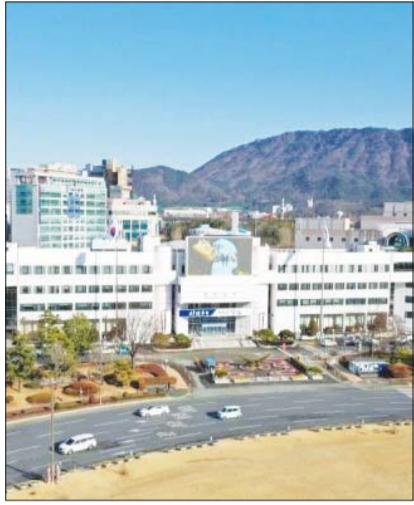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 창원, 아동·장애인·취약계층 아우르는 시민체감 돌봄 본격화

통합돌봄 가동 2500명 맞춤 지원 의료기관 58곳 협약 돌봄망 구축 그냥드림 시행 먹거리 문턱 완화 아동수당 확대 소급 지급 병행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가 아동부터 장애인·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시민 체감형 돌봄정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긴급 먹거리 지원, 아동수당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4개 사업이 핵심이다.

지역 사회 통합돌봄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행에 맞춰 본격 가동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일상생활 돌봄·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약 25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58개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보건소 등 8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읍·면·동 단위로 활동할 '이웃돌봄활동가' 660명도 모집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의창구 도계동 창원시희망푸드마켓을 방문하면 심사 없이 현장에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노숙인·신용 불량자 등 기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계층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이용 시에는 상담을 통해 공공 부조와 지역 복지지원 연계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4월부터는 2017~2018년 생략 9300명에게 1~3월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해 소급 공백을 해소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5월

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이용 장애인이 급여액의 20%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입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에선 창원시가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중심으로 30명이 참여한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수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민의 삶과 일상에 더 가까운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빈틈없는 지역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경남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 행정 통합을 목표로 국회에 특별법을 공식 발의했다.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석원 의원을 대표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를 비롯해 조경태·박수영, 정점식·강민국·최형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먼저 필요한 자치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충남도 '마을행정사' 제도 본격 운영

충남도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과 마을행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제도 소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는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마을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작성,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 전문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남문 외투자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창원시 진해구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BJFEZ는 최근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잔여 부지 활용 방안과 앞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제조 기업의 운영 애로사항과 기업 지원 정책, 투자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항만·공항·철도를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제조 거점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영주시 내달 소수서원 야간개장 운영

영주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소수서원 야간개장을 진행한다. 운영일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해당 기간 방문객은 별도 비용 없이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야간개장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은 5월 2일 오후 6시 30분 경림정 앞에서 열린다. 개막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야간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운영은 전통문화유산의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하여,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서원의 건축과 자연 경관을 부각시켰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설명회. /경북도

## 경북, 中 상하이서 투자유치 보폭 넓혀

### 한중 산업협력 포럼 현지 개최 유망기업에 경북 투자환경 소개

경북도가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투자 포럼을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현지에서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했다.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양국 정부 인사와 대

학·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경영진, 투자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상하이 권역 유망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포럼에서는 중국 금융·자본시장·플랫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특히 경북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영양군, 응급의료 해법 공론화 시급

닥터헬기·야간진료로 버티는 현실 군비 지원에도 응급실 확충은 난망

영양군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영양군은 닥터헬기 운영과 영양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간신히 야간 진료의 맥을 잇고 있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응급실'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생명권 보장이라는 대원칙과 경제적 효율성(B/C) 사이에서 영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와 군비를 지원받는 영양병원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를 영양병원에 지원해 입원실과 야간 진료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확충과

고도화된 장비 도입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 대비 편익(B/C)'이다. 낮은 수요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중앙부처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지역 내에서는 군립의료원 건립, 민간 병원 지원 확대, 예방 시스템 및 접근성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의 합의와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완도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박차

3개 생활권에 총 300억 확보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 뉴딜 300'의 후속 사업으로 '23년 완도읍 망남 생활권, '25년 신지면 동고 생활권에 이어 '25년 말 금일읍 관문권이 공모에 선정되어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개소당 100억 원이 투입되며 항만 정비와 생활 시설 확충, 주민 복지 공간 등을 조성하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 준공까지 4개년간 추진된다.

완도읍 망남 생활권('23~'26)은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항 시설 개선과 어촌 스테이션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골자로 올해 초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월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전경. /완도군

까지 실시계획 마무리,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지면 동고 생활권('25~'28)은 폐교를 활용한 돌봄 센터 리모델링 및 공동 생활 휴 조성, 어항 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기본 계획 수립은 7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울진군, 동해선 KTX 100일 맞아 관광홍보

부산역서 관광자원·특산품 알리

울진군이 동해선 KTX 개통 100일을 계기로 부산역에서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코레일 강원본부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울진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직접 소개하며 철도 기반 관광 활성화를 겨냥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동해선 KTX의 운행 100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울진군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 수요 확대를 목표로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역에 홍보 공간을 설치하고 방문객 접점을 넓혔다. 현장에서는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

그램이 안내됐다. 지역 특산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며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접근성이 개선된 울진의 관광 매력을 직접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형 이벤트도 호응을 얻었다. 금강송주와 금강송꿀 그리고 매화쌀엿 등을 제공하는 물렛 행사가 진행되며 철도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울진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 행사를 통해 '울진이 기차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 관광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굿즈 넘어 경험으로... K-팝 영향력, 유통·호텔까지 확장

패션·F&B·전시 등 범위 확대  
고객 유입 돕는 문화 플랫폼 기능  
팬덤, 가치 참여 집단으로 전환



음악 콘텐츠를 매개로 패션, F&B, 라이프스타일, 전시·문화공간까지 소비 범위가 넓어지며, K-팝은 특정 산업군이 아닌 '소비 트리거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K-팝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투여는 이제 음악 산업 내부의 이슈를 넘어 유통·호텔·패션·문화공간 전반의 소비를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팬 활동이 단순 음반·굿즈 구매를 넘어 공간 체험, 브랜드 협업, 가치 참여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하나의 '경험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 팬 소비의 중심이 앨범, 포토카드, MD(Merchandise) 등 물리적 상품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스토리와 체험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는 양상이다. 음악 콘텐츠를 매개로 패션, F&B, 라이프스타일, 전시·문화공간까지 소비 범위가 넓어지며, K-팝은 특정 산업군이 아닌 '소비 트리거 콘텐츠'로 기능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문구 브랜드 몰스킨(Moleskine)은 블랙핑크(BLACKPINK)와 협업해 한정 에디션을 선보였다. 단순 로고 삽입 수준을 넘어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기록 행위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이를 '소장품'이 아닌 '사용하며 경험하는 상품'으로 받아들이며, 브랜드 역시 제품 판매를 넘어 팬의 일상 속 접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는다. 공간 기반 협업도 늘고 있다. 파르나

스호텔이 운영하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방탄소년단(BTS) 컴백에 맞춰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이며 숙박을 '팬 경험'으로 재해석했다.

객실, 굿즈, 식음 콘텐츠를 하나의 콘셉트로 묶어 체류 자체를 콘텐츠화한 사례다. 이는 호텔이 단순 숙박 서비스를 넘어 IP 기반 체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그룹의 컴백은 전통 문화 공간도 새로운 경험 소비 공간으로 바뀌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블랙핑크와 협업해 오디오 도슨트 콘텐츠를 선보였고, 방탄소년단은 경복궁과 광화문을 무대로 활용했다. 전통 공간이 관람 대상에서 체험 콘텐츠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에겐 전통이 새로운 취향 소비로 자리 잡았다.

가치 선순환 사례도 있다. 세븐틴(SEVENTEEN)은 유네스코(UNESCO) 활동과 연계한 협업을 통해 메시지 중심의 참여를 유도했다. 한정 상

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경매와 기부 구조를 결합해 팬들이 메시지 확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팬덤이 단순 소비 집단을 넘어 '가치 참여 집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굿즈 판매가 아닌 경험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 입장에서 단발성 판매보다 브랜드 접점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팬 입장에서 아티스트와의 연결감을 일상과 공간 속에서 확장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팝이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단순 협업 상품을 넘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오프라인 이벤트, 관광·전시·리테일까지 결합한 복합 소비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비비고, 5억뷰 콘텐츠로 글로벌 소비자 공략

CJ제일제당, K-푸드 입지 강화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바이럴 확산  
만두 활용 레시피 등 콘텐츠 유행



비비고의 미국 앰버서더인 배우 랜달 박(Randall Park)과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 '비비고 포 잇(bibigo for it)'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콘텐츠형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Randall Park을 앰버서더로 내세운 'bibigo for it' 캠페인이 주목을 받았다. 랜달 박의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K-푸드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이 캠페인 영상은 누적 노출수 5억 뷰를 기록했다. 캠페인 기간 비비고 미국 웹사이트 방문객도 50만 명을 넘겼다. 영상에 등장한 소고기 비빔밥, 치킨 잡채, 매운 소스 만두 등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현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바이럴도 브랜드 확산에 힘을 보탰

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인플루언서 R K Empire와 함께 진행한 '12 days of bibigo'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틱톡 팔로워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이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올린 언박싱 영상이 확산되며 비비고 미국 틱톡 계정 팔로워는 15% 증가했고, 관련 콘텐츠 노출수는 171% 늘어났다.

이같은 디지털 확산 효과는 만두를 넘어 고추장, 누들 등 다양한 제품군인 지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그맨 카노 에이코와 함께 '비비고 만두부장' 바이럴을 전개하고 있다. 1년간 만두 555만 개 판매에 도전하는 콘셉트의 유튜브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누적 노출수 3억 4000만 뷰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만두교차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개한 '만두송' 영상도 3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다. 이러한 활동에 비비고 만두는 3월 기준 일본 시장 점유율 10%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신원선 기자

##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홈플러스 할인전

오늘부터 22일까지 특가 행사

홈플러스가 PB 브랜드 '심플러스'를 앞세워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PB 상품 체험 기회를 확대해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선식품, 델리,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심플러스' 중심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커피 음료를 비롯해 위생 검사를 거친 태국산 신선란, 서

해안 꽃게, 봉지라면과 상온 시즈면, 델리 파스타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먹거리 상품을 행사 품목에 포함했다.

가공식품과 생활필수품도 '가성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산콩 두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케이크, 건면 라면, 콩나물, 감자칩, 차 음료, 냉동 블루베리 등 식품군과 텀블러, 침구류 등 비식품군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어린이날 수요를 겨냥한 완구 행사도 병행한다. 온라인 사전예약 방식으로 레고를 할인 판매하고, 프린세스 캐치



모델이 15일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에서 PB '심플러스(simplus)'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티니핑, 시크릿주주, 뽀로로·핑크퐁, 포봇 등 인기 완구를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행사카드 결제 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고물가 시대... '소분용 대량구매' 대세

'쓱 트레이더스 배송' 매출 38% 증가

고물가 영향으로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상품을 구매해 비축·소분하는 '멀크소비'가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SSG닷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창고형 할인점 상품을 원하는 일시에 배송해주는 '쓱 트레이더스 배송'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신선식품이 44% 신장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소분해 보관하는 문화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편식(HMR) 매출도 40%가량 늘었다. 냉동 간편식은 편의식(60%), 만두(48%)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5~7개입 묶음 판매하는 볶음밥과 대량량 튀김류, 일반 상품 대비 중량이 3~5배 큰 만두가 잘 팔렸다. 김치, 반찬 등 농산HMR도 매출이 85% 급증했다.

간편식 이외의 가공식품 매출도 36% 증가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품목 위



쓱 트레이더스 배송 주문 화면 /SSG닷컴

주의 '비축형 소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커피·차(72%)와 건강식품(43%)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신장세의 배경으로 쓱닷컴은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의 압도적인 상품 경쟁력과 원하는 일시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 결제액의 7%를 고정 적립해주는 멤버십 '쓱클럽'의 시너지를 꼽았다. 특히 대용량 상품이 많아 한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큰 만큼, 멤버십 고정 적립 혜택은 실질적인 장바구니 부담 완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 11번가, 중국 역직구 전문관 6월 론칭

'징둥월드와이드'에 오픈

11번가가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 '징둥닷컴'과 함께 하는 중국 역직구 사업을 본격화한다.

11번가는 오는 6월 중순 '징둥닷컴'의 대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월드와이드'(JD Worldwide)에 '11번가 전문관'을 오픈하고, 11번가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11번가는 판매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1번가와 중국 역직구 사업을 함께 펼칠 판매자 모집에

나섰다.

오는 6월 중순 선보이는 '11번가 전문관'은 판매자 친화적 운영에 가장 신경 썼다. 판매자가 배송, 마케팅 등 초기 부담 없이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판매자는 중국 고객의 주문 발생 시 해당 상품을 11번가 물류센터에 입고시키기만 하면 된다. 11번가는 제품을 매입한 후 ▲해상운송 ▲통관 ▲중국 내 배송 ▲CS(고객응대) ▲마케팅 ▲세금 처리 등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전담한다.

/신원선 기자

# K-제약사, 신약 제형·용량 다양화... 글로벌 시장 정조준

## 한미약품 롤론티스 신규 제형 추가 GC녹십자 알리글로 SC 개발 추진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입지 강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자체 개발한 신약의 제형 변경, 용량 다양화 등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산 신약 확보뿐 아니라 환자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충족 수요를 공략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극대화하고 있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롤론티스' 오토인젝터 주(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티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롤론티스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 신약으로, 이번 신규 제형은 기존 사전중전형 주사제(PFS)를 개선한 '자동 주사제'다. 바늘이 보이지 않는 펜 형태로 설계돼 환자가 버튼만 누르면 일정한 용량이 자동으로 투여된다.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자가 투여를 가능하도록 해 복약 순응도를



'알리글로'

/GC녹십자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 프리필드시린지주.



/한미약품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롤론티스는 제33호 국산 신약인 동시에 한미약품의 혁신 성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첫 글로벌 신약이다. 약물 반감기를 늘려 투약 주기를 줄이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이다. 2022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롤베돈이라는 현지 제 품명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제약기업과 롤론티스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중동 시장 공략에도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한미약품 측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형 확보로 신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 역시 주력 품목인 '알리글로'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다지고 있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2024년 7월 미국으로 진출한 후 1년 만인 2025년 7월 미국에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알리글로 2025년 연간 미국 매출은 1511억원(약 1억6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규모다.

오는 2028년 알리글로 연간 매출 3억 달러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GC녹십자는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정맥투여용 알리글로의 투여 편의성을 개선한 피하주사형(SC) 면역글로불린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응증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 대상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해 있고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7년까지 소아 연령으로 허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GC녹십자 측은 "고마진 제품의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까지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는 용량을 다양화하며 처방 입지 확대에 나선다. 어나프라주는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됐다. 100mL 단독 용량으로 공급돼 왔으나 올해 들어, 20mL가 출시됐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에 따른 유연한 처방을 반영한 것이다. 10mL, 5mL, 2mL 등 소용량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오는 2027년까지 고농도 주사제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만 큼이나 중요한 것이 출시 이후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고도화 전략"이라며, "제형 변경은 특허권 방어와 더불어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요소가 되는 만큼, 국산 신약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애경산업, 헤어케어 브랜드 폴란드 진출

### '시카라보·알피스트' 현지 스토어 입점 독일 등 유럽 주요채널 추가 진출 검토

애경산업은 K헤어케어 브랜드 '시카라보'와 '알피스트'가 폴란드 대표 드러스토어 로스만 폴란드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지난 3월 시카라보 5종, 알피스트 4종 등 총 9종의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시카라보는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최신 뷰티법인 '스키니피케이션'을 반영한 두피 관리 제품군이다. 시카 성분은 활용해 민감 두피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준다. 알피스트는 자연 유래 성분을 갖춘 비건 제품군으로 두피 유수분 균형 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번 입점은 시카라보와 알피스트



폴란드 현지의 로스만 폴란드 매장에 시카라보와 알피스트 매대가 설치되어 있다. /애경산업

가 유럽 주요 채널로 처음 진출한 사례다. 애경산업은 기능성 제품, 천연 성

분 등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를 적극 공략해 향후 유럽 헤어케어 시장을 아우르는 브랜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은 폴란드 시장 내 판매 성과와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 바디케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로스만 그룹이 진출한 독일, 체코, 헝가리 등 인근 국가 및 유럽 주요 드러스토어·뷰티 채널로의 추가 진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폴란드는 기능성 헤어케어와 비건 제품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헤어케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LG생활건강, 협력사 납품대금 인상 추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 함께 극복

LG생활건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 단가를 조정해 협력사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인상해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협력회사와 함께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15개 협력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 59건의 납품 단가를 25억6000만원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만 6000여 건 계약에 대한 납품대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올해 총 인상액은 최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LG서울역빌딩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왼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사들이 차질 없이 물품을 납품해 준 덕분에 LG생활건강이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상생과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 신제품

##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골든 픽 해차'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에서 '2026년 골든 픽 해차'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오설록은 이른 봄의 생명력을 담은 수제 명차 '일로향', 곡우가 지나기 전 채엽한 명차 '우전', 브랜드 대표 녹차 '제작' 등을 구성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기존 잎차 중심의 해차 제품군을 확장해 고급 말차 제품군인 마스터즈 말차, 프리미엄 말차 등을 내놓는다.

오는 5월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에서는 전용 해차를 공개한다. 티 로스터리에서는 산지에서 갓 가공한 녹차 해차를, 말차 스테이션에서는 즉석에서 갈아 낸 말차 해차를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연구성과 공유

AACR 참가... 우수한 항종양 결과 확보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오는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 회의 2026(AACR 2026)에서 '네수파립'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차세대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제 후보물질로,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한다. 현재 쥐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 4개의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네수파립 데이터는 소세포폐암 세포 실험에서 기존 파프저해제로 알려진 올라파립 대비 최대 133배, 이리노테칸 대비 약 25배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동물 모델에서도 약 66.5%의 종양 억제율을 기록해 비교군 대비 개선된 결과를 확보했다.

쥐장암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네수파립은 BRCA 변이가 없는 모델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이며 쥐장암 표준치료제인 젠아브라센과 병용 시 암세포 생존율을 70% 이상 낮추고 종양 크기를 79%까지 감소시켰다.

아울러 네수파립은 특정 암종에 국한되지 않는 '다암종 항암 신약' 가능성까지 갖췄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병용요법, 환자군 확장 등으로 네수파립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 새로엠에스, '건강배급소' 서비스 선택

맞춤형 영양제 추천·공급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솔루션 '건강배급소'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배급소'는 개인 건강 상태, 식습관, 기존 질환 및 약 복용 여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공급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따라 소분·조합과 안전 관리 및 판매 기준을 충족해 운영된다. 또 국가 면허 자격증을 보유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서 상담을 제공

한다.

새로엠에스 '건강배급소' 웹사이트에서 건강 관련 체크리스트 설문을 진행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섭취 조합을 설계해 준다. 희망하는 섭취 방식, 횟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1회 섭취분만큼씩 1팩에 모아 소분 포장할 수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수령 가능한 주문, 결제, 배송 서비스도 연계됐다.

아울러 새로엠에스는 임신부와 같이 특정 시기별로 맞춤 영양 설계와 섭취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 층을 중심으로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해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행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소진공-코트라,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 간 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을 했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오른쪽)이 강경성 코트라 사장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셀트리온, S&P CSA서 생명공학 Top 1% 선정**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생명공학 부문 '톱(Top) 1%'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 개선 폭을 인정받아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서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실 이동진 상무(오른쪽)가 트로피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



**대우건설-한전, TBM 설계기술 고도화 '맞손'**

대우건설은 한국전력과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한전 김대현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KT, 봄철 산불 조심기간 화재 긴급복구 훈련**

KT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앞두고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과 국사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훈련에는 현장 소통 플랫폼 'SFC(스마트 필드 체크)'가 활용된다. /KT

**인사**

- ◆ 교육부 ◇ 전출 △외교부(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하유경
- ◆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조창배

**부음**

▲홍용기씨 별세, 방병철(충북 단양군 전 정무보좌관)씨 장인상 = 14일 오후, 빈소 청주 하나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43-270-8400

**장인화 “탈탄소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 공조 필수”**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에서 강연  
업계 대표로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회장은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루고 탄소저감 강재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둔화와 에너지 비



14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우르 달베레르 세계철강협회장 겸 튀르키예 출라클루 메탈루지 회장. /포스코홀딩스

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탈탄소 전환은 철강업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포스코의 탈탄소 로드맵을 공유했다.

장 회장은 이번 정기회의 기간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에는 중국 보무강철, 일본제철, 인도 JSW 등 글로벌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산업 영향, 탄소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 중장기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장 회장은 이어 사진 전달 인도 JS

W그룹 회장, 리우지엔 중국 하강그룹 동사장 등과 잇달아 만나 해외 철강 투자와 탄소저감 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포스코는 이날 열린 회원사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 선정패도 받았다. 이 인증은 세계철강협회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동아에스티, 이탈리아 경제단체 접견**

콘핀두스트리아 소속 대표단에 R&D시설, 생산시설 등 소개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에 이탈리아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 소속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이다.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기업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게 송도 연구소 최첨단 R&D 시설과 송도캠퍼

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또한 R&D 중심 경영 방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신약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R&D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임상 단계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효율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또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연계 강화에 개발 단계부터 상임화, 생산, 공급까지 고려하는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경쟁력과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금호석유화학, 재활용 ABS로 장영실상**

(고부가합성수지)

자동차 내장용 소재로 고도화

금호석유화학이 재활용 고부가합성수지(ABS)의 한계를 넘어서 자동차용 고사양 소재 상용화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장재용 소재로 고도화하고 실제 양산 적용까지 이끌어내면서 재활용 소재의 활용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서연이화, 현대자동차 연구진과 함께 재활용 ABS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장용 소재로 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제12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영실상은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기술 혁신성과 시장성, 경제 적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는 국내 대표 산업기술상 가운데 하나다. 금호석유화학의 장영실상 수상은 1996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에너지·환경 분야 수상은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TV와 냉장고 등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ABS를 자동차용 내열 ABS 소재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완성차 양산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iF 디자인 어워드 3관왕**

제품·서비스 디자인 동시 수상

LS일렉트릭은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총 3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작은 스마트 차단기 '컴팩트 ACB'와 차세대 자동화 솔루션 'XGT Integrated Safety PLC'가 제품 디자인 부문, 에너지 컨설팅 플랫폼 'Beyond X - Enable'이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선정됐다.

올해 대회에는 68개국에서 약 1만 개의 후보작이 출품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LS일렉트릭은 제품 완성도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설계 역량을 인정받아 3개 부문에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 기자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전반에 걸쳐 혁신성, 사용성, 심미성,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대회에는 68개국에서 약 1만 개의 후보작이 출품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LS일렉트릭은 제품 완성도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설계 역량을 인정받아 3개 부문에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 기자

**'서울커피엑스포', 글로벌 트렌드 소개**

오는 18일까지 코엑스서 열려

커피 한 잔을 넘어 카페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서울커피엑스포'가 올해도 글로벌 트렌드와 실전 운영 해법을 제시한다.

'2026 서울커피엑스포'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A·B홀에서 열린다. 코엑스와 한국커피연합회

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기기·장비, 원두, 원부재료, 매장 운영 솔루션까지 커피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의 커피 비즈니스 전시다.

올해 슬로건은 'Blend the World'.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공유하고 카페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협력은행 감사패 수여식'에서 (왼쪽부터)박준형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 상무, 오은선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현욱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민병도 농협은행 GIB(글로벌투자) 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시중은행 6곳에 감사패 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협력은행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시중은행 6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수여식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에 협력한 은행들에 감사함을 전하기위해 마련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이 감사패를 받았다.

금융기관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 330만명 중 약 59%(195만명)를 유지하는 등 노란우산 가입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노란우산 가입자는 13만886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1.9%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노란우산을 가입한 고객의 91.3%가 은행 대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같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제도다. 소득공제(연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적용, 공제금 압류금지 등의 혜택이 있다.

6대 시중은행 외에도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MG새마을금고, 우체국, 토스뱅크를 포함한 전국 16개 금융기관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2028 대입 중앙대 입학설명회를 다녀와서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내신 평가 체제가 5등급제로 전환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입시 환경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앙대학교 입학처는 'CAU FORMULA 2028: UNVEILING'을 통해 대학의 고민과 그에 따른 해법을 전격 공개했다.

중앙대학교는 변별력 확보와 평가의 신뢰도 그리고 고교 교육과의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500여 명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최적의 공식을 도출해 냈다. 이는 수시와 정시가 유기적으로 만나고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앙대학교는 시행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입시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학종4'로 명

명됐던 전형 명칭을 '수능 67'로 변경했다. 또한 서류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능 반영 비율을 67%로 상향 조정하고 서류 비중을 33%로 낮춰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돕기 위해 계획했던 'CAU 수능 케어(중수케)'는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며 전형의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수시 모집의 핵심인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교과는 교과답게'라는 원칙 아래 505명을 선발한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는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한 변별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100% 정량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영 교과는 등급이 표기되는 전 교과를 포함해 고교 생활 전반의 성실도를 평가에 담아낸다.

중앙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발맞춘 세 가지 세부 전형으로 분화됐다. 계열 교과 탐구 역량을 중시하는 'CORE'는 2단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심층 검증하며, 전 교과와 균형 잡힌 성장을 평가하는 'ALL'은 서류 100%로 선발한다. 수능 경쟁력까지 갖춘 인재를 위한 'UP'은 서류 10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결합했다.

논술 전형은 482명을 선발하며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전형을 이원화했다. 신설된 '재학생 논술'은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수능 전 고사를 실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합격의 문을 넓혀주었다.

정시 모집은 수능 과목 개편이라는 기본 토대와 고교학점제라는 심화 환경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두 가지 트랙을 설계했다. 수능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서류 33%를 합산하는 '수능 67' 전형은 수능의 자격고사화 경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모델이다. 반면 기준치점 '표준점수'를 89% 반영하고 출결 11%를 합산하는 '수능 89' 전형은 수능 점수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적합하다.

설명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개근의 가치에 대한 중앙대학교의 남다른 철학이었다. 모든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마지막 단계에 '개근 학생 선발'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중앙대 전형안의 핵심은 학생의 역량 궤적에 따른 지원 트랙의 철저한 세분화에 있다. 정량적 우위를 점한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칙을 활용하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 실손보험과 정상화 과제



김 주 형  
(금융부)

실손보험 개혁은 필요하다. 과잉 비급여를 줄이고, 계속 오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손의료액의 통로가 되는 구조를 손보자는 방향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 개혁의 다음 수단으로 '계약 재매입'이 거론되는 순간 질문은 달라진다. 실손을 정상화 하겠다면서 왜 가입자에게 먼저 "좋은 계약을 정리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에서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약 1600만명이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는 계약

재매입과 비급여 보장 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구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큰 방향은 던졌지만 정작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 할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흐린 상태다.

문제는 이 구상이 소비자에게 '선택권 확대'보다 '선택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보장 조건이 지금보다 넓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일정 보상을 받고 갈아탈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우량계약부터 빠져나가면 남은 계약의 손해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고, GA 채널의 부당 승환이나 절판마켓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만 아니라 또 다른 혼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 짚짚한 대목은 개혁의 방식이다. 실손

보험의 문제는 과잉진료와 낮은 자기부담, 왜곡된 비급여 이용 구조에서 시작됐는데 해법은 정작 계약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당국 입장에서 재가입 주기가 없는 옛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상품만 내놓아서는 구조 개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되사는 방식'이 곧바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그 개혁 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을 되사는 방식의 우회로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재매입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계약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GA 채널의 부당 승환을 어떻게 막을지, 전환 이후 남은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어떻게 완충할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6일 (음 2월 2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마세요. 72년생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기에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게 좋습니다.



50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2년생 직장에서 큰 위험이 있습니다. 74년생 승진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86년생 막혔던 금전운이 풀립니다.



51년생 일에는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기본 소식이 들려옵니다.



52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4년생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76년생 괴로운 일 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88년생 귀인을 만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53년생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65년생 빌린 돈을 돌려받습니다. 77년생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89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54년생 전체적으로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66년생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더욱 자중하세요. 78년생 되도록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90년생 물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뜻밖의 양심고백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우연한 일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79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장을 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56년생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8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0년생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9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여행하기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69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습니다. 81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93년생 학업에 몰두하세요.



58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82년생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4년생 대중교통이용을 조심하세요.



59년생 손실함 있고 이로움은 적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83년생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95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 김상회의四季

작가와 추락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모습을 마스크를 통해 접하곤 한다. 어제까지는 큰소리치다가 뇌물 수수나 갑질 의혹으로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큰 힘을 갖게 되거나 큰돈을 쥐게 되면 기묘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지금 우리는 이 권세와 풍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이 그것이다. 자기의 칼이 무뎠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발아래 앞드린 이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오만함,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는 없다. 오죽했으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을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의 화무십일홍은 세상살이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 화려하게 핀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기 마련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치다. 역사에는 화무십일홍을 증명하는 사례가 숭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부터 근대의 독재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러한 권력욕과 오만은 특정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강할 때 많이 나타난다. 사주에 관살이 지나치면 권력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는 욕망이 강하다. 비겁이 강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욕망과 착각은 좋은 운세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 권력욕이 강하고 오만한 마음이 쉽게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힘을 갖게 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머지않아 추락하고 만다. 발발을 살피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추락을 막을 수 있다. 큰 힘과 큰돈을 손에 넣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라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5			3	7	6
		1		3	
8	3		4	5	
	3				7
7	8		2	5	3
	5			6	
		4	1		3
		4		2	
3	2		6		5

1				9	4	8
7				8	9	5
			4			7
3	1		5			4
	9					8
4			1	5		7
	1			5		
	4	3		9		5
9	2	1				6

9	1	7	8	9	6	2	7	8
2	9	6	2	9	8	7	8	1
8	8	2	2	1	7	9	6	9
1	7	9	8	2	8	6	9	2
8	6	9	7	2	9	8	1	2
2	2	8	1	6	5	8	9	7
6	7	1	9	7	2	9	8	8
7	2	9	8	9	8	1	2	6
9	8	2	6	8	2	1	7	9

9	7	8	2	8	1	2	9	6
9	1	2	9	6	2	8	7	8
6	2	8	9	7	8	2	1	9
2	6	9	2	1	8	8	9	7
8	8	1	7	9	2	9	6	2
7	9	2	8	9	6	1	2	8
1	2	9	8	2	7	6	8	9
2	9	6	1	8	9	7	8	2
8	8	7	6	2	9	9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화... 거점대 3000억 집중 투자

### 교육부,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연내 거점국립대 3곳 선정·지원 성과 중심 대학구조 혁신 추진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던 기존 구상과 달리, 3곳을 5년간 먼저 집중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다른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역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패키지형 집중 투자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을 동시에 지원하고, 대학당 약 1000억원 내의

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 3곳의 집중 지원 기간은 5년으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한 뒤 나머지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를 위해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에 총 1200억원, AI 교육·연구 거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을 통해 연간 1500명 내외를 지원하고, 기업·출연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전체로 AI 역량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초·중·고 연계 교육과 지역 주민·재직자 대상 교육까지 확대해 지역인공지능 전환(AI)을 지원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3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와 별도로 전체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총 5448억원을 투입해 채용 조건향 계약학과 확대,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화,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도 단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공유와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협력 범위를 넓힌다. 공유 대학 체계에는 총 12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서울대의 약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3개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학별 실행계획을 접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장엔진 확정 이후 최종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광명시, 미래 일자리 사업 556억 투입

올해 일자리 1만6965개 창출 목표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1만 6965개 창출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속도를 낸다.

시는 민선8기 비전인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올해 총 123개 사업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직접 일자리 6462개 ▲직업능력개발훈련 2949건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5656건 ▲창업지원 230건 ▲거버넌스 및 인프라 구축 1668개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68%, 취업자 수 15만 43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만 9280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일자리 정책은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

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4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일자리 제공, 여성 직업교육훈련,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한 신중년 교육 및 취업 지원,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예산 143억 확보... 전년 두배 수준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로, 고위험 임신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첫째 신청 건수 1만3718건에서 지난해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

시는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1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5억2000만원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16일 (목)  
음력 : 2월 29일

수도권 날씨  
10 ~ 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8/26  
동두천 9/26  
가평 7/26  
파주 8/26  
서울 10/26  
양평 8/26  
용인 10/25  
수원 10/25  
평택 9/26  
백령도 9/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시, RISE 추가 공모... 260억 규모

내달 15일까지... ‘현장 실효성’ 초점

서울시가 대학의 인재와 기술을 산업 현장의 경제 성과로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기존 서울형 RISE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의 혁신 자원이 ‘캠퍼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신규, 35억원)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확대, 185억원) ▲서울 RISE 10 챌린지(신규, 50억원) 등 3개의 핵심 단위과제 등 3개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RISE 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4일 서소문 1청사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리즈(RISE)를 대학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대학의 잠재력이 서울의 성장 동력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 민주공고, 美 추방하는 불법이민자 30여 명 첫 수용
- ▲ 트럼프 차남 에릭, 부친 中방문 동행 “개인 자격 참석”



- ▲ 월가 은행들, 중동 리스크에도 깜짝 실적 “美 소비 탄탄”
- ▲ 시진핑, 러 라브로프 접견...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 강조

/사진 뉴시스

- ▲ 트럼프 ‘예수 이미지’ 내렸지만... 공화당 비판속 교황 총돌 파장
- ▲ 美 코스트코 ‘8초 결제’ 도입했지만... 현장 직원은 “아수라장” 분통



곳즈에서 경험으로  
K-팝 영향력  
유통·호텔까지  
니



Life

국산신약  
제형·용량 다양화  
편의성 높여  
L2



# 130년 깊은맛에 현대적 감성 더해... 일상에 커피향 채우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130년 역사를 지닌 글로벌 커피 브랜드 맥스웰하우스가 다시 한 번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최근 RTD(Ready-To-Drink) 제품군 전면 리뉴얼을 통해 '하나의 맥스웰하우스'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며, 일상 속에서 한결같이 즐길 수 있는 커피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 ◆ '맥스웰하우스' 국산 커피 시대 시작

맥스웰하우스의 출발은 130여 년 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커피 세일즈맨이었던 조엘 오슬리 칙(Jeol O. Cheek)은 세계 최고의 맛과 향을 가진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커피를 완성했다. 이 커피는 1892년 미국 내슈빌의 '맥스웰하우스' 호텔에 처음 납품됐으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호텔 이름을 브랜드로 상업화해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1970년, 동서식품이 맥스웰하우스를 생산하던 미국의 제너럴 푸즈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커피 역사가 시작됐다. 그해 9월 커피 원두를 볶아 분쇄한 상태로 캔 포장된 '맥스웰하우스 레귤러커피'가 출시되며, 미군 PX에서 나온 커피 대신 최초로 국내에서 제조된 커피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최초의 분말화된 입자 형태의 '맥스웰하우스 인스턴트커피'도 선보였다.

### ◆ 커피믹서 캔커피 대중화까지

맥스웰하우스는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을 통해 국내 커피 문화를 선도해왔다. 1976년 선보인 세계 최초의 커피믹스인 '맥스웰하우스 커피믹스'가 대표적이다. 당시만 해도 커피는 커피와 크림, 설탕을 각각 넣어 마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동서식품은 커피 제조 노하우를 토대로 커피, 크림, 설탕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는 커피'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아이스로 즐기기에 좋은 최고급 분무 건조 커피 '맥스웰하우스 그레놀', 카페인 성분을 97%까지 제거한 인스턴트 탈카페인 커피 '맥스웰 상가'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RTD시장에서 맥스웰하우스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했다. 1986년 출시된 '맥스웰하우스 캔커피'는 국내에서 생소했던 캔커피를 대중적인 음료로 끌어올렸다. 신선한 커피



▲ 맥스웰하우스 페트제품 상단 점자표기.

동서식품은 이달 맥스웰하우스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브랜드 체계를 통합했다.



130여년 전 미국서 출발한 커피 브랜드 1970년, 동서식품 통해 국내로 유통

크림, 설탕 배합한 첫 커피믹스 선보 아이스·디카페인 등 제품 라인업 확장 1986년 캔커피 출시...대중화 이끌어

최근 패키지 리뉴얼, 브랜드체계 통합 시각장애인 위해 페트 제품 점자 표기 헤리티지 담긴 클래식 이미지로 차별화

추출액에 우유와 당류를 더해 부드러운 맛과 향을 살린 제품으로, 커피액에 우유의 맛을 더한 '맥스웰 카페 오레'와 우유 함량을 최소화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강조한 '맥스웰 커피' 2종으로 출시됐다.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발매 4개월 만에 500만 캔 생산을 돌파했다.

이후 '맥스웰하우스 마스터',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약 40년간 RTD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9년에는 국내 RTD 페트 제품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 RTD 페트 제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블랙·라떼 2종을 선보였고, 이듬해 '스위트 블랙'을 추가 출시했다.

### ◆ '하나의 맥스웰하우스' 전면 리뉴얼

동서식품은 올해 4월 맥스웰하우스 RTD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브랜드 체계를 통합했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의 서브 브랜드 체계를 '맥스웰하우스'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 보다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패키지에는 130년 전통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로고가 적용됐다. 맥스웰하우스의 상징인 'Good to the last drop(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는)' 슬로건과 커피잔 아이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품질 철학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트렌드 중심의 RTD 커피 시장에서 클래식한 이미지로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제품 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도 더해졌다. 페트 제품 상단에 점자 표기를 통해 제품 유형을 손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맥스웰하우스는 페트 4종(블랙, 라떼, 스위트 블랙, 헤이즐넛 블랙)과 캔 3종(오리지널 블랙, 스위트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맥스웰하우스가 지닌 130년 전통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맥스웰하우스가 소비자의 일상에서 꾸준히 선택받는 커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U-20 여자축구, 오늘 아시안컵 4강서 두 번째 '남북 대결' /사진 뉴시스  
▲'이강인 벤치' PSG, 리버풀 2-0 제압...UCL 4강 진출

▲손아섭, 홈런으로 화려한 이적 신고...트레이드 효과 누린 두산  
▲'부활 날갯짓' 이정후, 2루타 포함 멀티히트...시즌 타율 2할대

▲'성범희 의혹' 황석희, '스파이더맨4' 번역 빠진다  
▲문채원, 비연예인과 6월 결혼...“소중한 인연 만나”

# S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인재를 키웁니다

LG는 세계 최초 사내 석박사과정 **LG AI대학원**과  
청소년대상 **LG 디스커버리랩**, 청년대상 **LG 에이머스** 등의  
SI 교육과정으로 연간 4만 8천 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미래, 같이

S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